

축사



'2006국제우수전기제품전시회' 유공자 포상식에 부쳐

안녕하십니까?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장 최갑홍입니다.

오늘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김봉균 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을 모시고 「2006 국제우수전기제품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유공기업과 유공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전기산업의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오신 전기제품업계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가 세 번째인 「2006 국제우수전기제품전시회」는 경쟁력이 있는 우리나라의 우수하고 안전한 전기제품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같은 업계 종사자간의 정보교류와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매우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생산기술의 발달과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소용돌이 욕조, 전신맛사지기 등 다양한 전기제품들이 계속 출시되어 생활전반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속에서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전기제품은 어린이나 노약자는 물론 전기적인 위험성 또는 인체의 위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반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성은 무조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번 전시회에 전시된 제품은 모두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한 제품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우리 원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아직도 많은 제품들이 안전기준에 미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제품업계 여러분들께 전기제품의 기술개발과 더불어 안전성까지 확보된



우수한 제품의 생산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기술표준원에서는 지난 7월 13일 「제품안전 자율이행 협약식」을 갖고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하던 시판품조사, 시·도 단속 등 사후 안전관리위주의 시스템에서 소비자와 기업,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사전예시적 자율안전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사전예시적 자율안전관리시스템'이란 정부가 사전에 안전관리대상품목 및 안전기준을 제시하면, 기업은 그에 적합한 제품을 공급하고, 소비자는 기업의 이행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시정권고하고, 또한 위해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에 건의하여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기술표준원은 관세청·경찰청·소비자단체·지자체 등과 연계한 제품안전 정보망을 구축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불량제품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안전관리제도를 잘 준수하는 기업에게는 정부포상 및 법정 정기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불법·불량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에게는 선택적 집중관리를 하는 등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개정하여 안전위해성이 높은 전기제품은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안전성이 이미 입증 된 제품은 제조업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율안전 확인제도"등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금번 「2006 국제우수전기제품전시회」행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전기제품의 안전에 많은 발전이 있고, 앞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전기제품을 개발·생산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여러분들의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수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는데 수고하여주신 안전협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이 자리를 빛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 12. 7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최 갑 홍 원장